



터닝포인트

장려상 | 주제 : 복수전공 | 일본어일본학과 | 4학년

🎓 선택한 계기는 유명해서

나는 본전공이 일본어이다. 보통 우리 과 같은 경우 취업을 고려하여 외국어, 경영, 호텔, IT 계열 쪽으로 복수전공을 많이 선택한다. 그런데 나는 특이하게도 사범대, 그것도 국어, 영어 교육도 아닌 전혀 관련 없는 특수교육을 선택했다. 그래서 특수교육 수업을 들을 때마다 혹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마다 일본어학과라고 신기해하거나 혹은 의아해하는 반응을 볼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조금 별쫂하기도 했다. '왜 특수교육을 선택했어요?'라고 들을 때마다 나는 대답하기가 망설여졌다. 왜냐하면, 선택한 계기는 거창한 것도 아닌 단지 '유명하니까 그래서 궁금했다.'가 다이기 때문이다. 대구대가 복지, 재활로 유명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다. 나는 그중에서 특히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대구대가 특수교육으로 왜 유명한지도 궁금했고 지역아동센터와 승마 재활센터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장애인에 관해 관심도 있었다. 그래서 특수교육을 복수전공으로 신청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수교육으로 신청하였다. 그렇게 합격하였고 나에겐 미지의 세계인 특수교육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 전환

특수교육과에 합격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생각보다 난관이 있었다. 교육법, 장애 종류 등 외울 것도 많았고 특수교사 면담 같은 특수학교에 방문해야 하는 과제가 있을 때 아는 지인이 없는 나는 식은땀을 흘린 적도 있었다. 성적도 내가 공부한 만큼 잘 안 나와서 복수전공을 괜히 했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었다. 도중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특수교육 공부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한참 특수교육 공부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생각의 전환이 된 계기가 있었다. 내가 듣던 일본어 문법과 문화 수업에 시각장애 학생분께서 수업을 듣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나중에 교수님께 물어보니 그분이 일본어에 관심이 많으셔서 수업을 듣는다, 타 학과 학생인데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일본어도 잘하신다고 들었다. 거기서 나는 시각, 청각 장애인은 어떻게 제2외국어를 공부하는지에 대해 문득 궁금해졌고 이를 위해 관련된 논문, 정보를 찾으며 읽어보기도 했다. 그래도 해소가 안 되는 궁금증은 특수교육과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질문도 했다. 질문이 미숙해 보였을 건데도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저것 알려주셨다. 이후 특수교육 공부에 흥미를 붙이게 되었고 스스로 선택한 길인데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 전공 공부 외에도 특수학교에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읽거나 외국 특수교육 원서를 사서 읽어보는 등 노력을 조금씩 하였다.

의외의 연결고리

본격적으로 특수 교육에 깊게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은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가서부터였다. 교환학생 도중에 연구 레포트를 제출해야 할 일이 있었다. 주제를 무엇을 쓸지 고민하던 중 특수교육이 문득 떠올랐다. 특수교육으로 주제를 잡는 건 좋았지만, 구체적인 틀을 잡기 위해 한참 고민을 하였다. 그때 수업시간 때 배웠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듣는 통합교육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수업을 들으면서 관심이 갔던 분야였고 더불어 장애학생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해 조사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대우와 내가 거주하고 있던 일본 지역의 통합교육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제를 잡기 시작했다. 그 이후 레포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특수학교를 방문해 수업 참관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받는지를 보고 교육청을 방문하여 특수교육 역사자료를 읽고 교사로 일하셨던 직원과 인터뷰를 했다. 또 특수교육과 교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자료를 모았다. 아직 특수교육을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모자란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한국, 일본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특수교육에 노력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예를 들어 교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면서 교회 지하에서 장애인을 가르쳤던 이영식 목사님과 지적장애인 자녀를 둔 일본인 어머니 세 분이 자신의 자녀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과 교육, 복지 등의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 만든 손을 잡는 육성회 등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 통합 교육 제도를 조사하면서 양국 생각보다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많았고 방식은 다르지만 장애, 비장애 학생이 어울려 참가하는 프로그램 사례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다. 대학원에 오라고 말씀을 건네주신 유쾌하신 교수님과 나에게 인사를 건네줬던 장애 학생들의 인사, 과제에 대해 여러 조언을 해주던 외국인 친구들, 그렇게 보낸 1년 동안의 일본 교환학생 경험은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일본에 돌아오고 나서도 일본 점자와 한국 점자를 스스로 공부해보거나 전공 수업 들을 때 일본에서 경험했던 일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교환학생 시절 겪었던 경험을 연관 지어 활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일본어와 특수교육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특수교육 공부할 때 일본어가 참으로 유용하게 쓰였다. 이렇게 본전공과 복수전공이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일으켜 예상치 못하게 좋은 효과를 일으켜 나의 시야가 넓어졌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후회되었던 복수전공 선택은 돌이켜보면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 되었다.

느낀점

복수전공은 나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다.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었고 좋은 발판이 되었다. 만약 복수전공이 아니었다면 장애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특수교육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도 몰랐을 것이다. 특수교육을 공부하면서 이런 분들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 존경심이 생겼다. 또 전공자, 비장애인 두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장애인, 비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간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좋은 기회였다. 더 나아가 장애인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취업도 복지, 특수교육 분야로 하고 싶어졌다. 마지막으로 복수전

공을 준비하거나 고민하는 사람에게 복수전공은 단순히 취업의 길을 넓히는 수단이 아닌 나의 시야를 넓혀주고 인생에 또 다른 길을 열게 하는 수단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또한 학교도 이러한 공모전을 자주 개최하여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복수전공의 좋은 사례를 소개해주고 인식을 바꾸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나의 글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